제별로 프로그램은 인식전환, 식행동 수정, 바른 식행동 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 중 식행동 수정단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육대상자는 총 108명으로 여고생 59명(2 집단)과 여대생 51명(1 집단)을 포함하였다. 영양교육은 강좌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집단별로 1회 50~60분씩, 3주에 한 번,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강좌와 강좌사이(예, 다음 강좌 일주일 전)에는 영양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영양문제에 대한 질의응답도 수시로 실시하였다. 교육일정 및 연락 사항 전달에는 휴대폰 메시지와 메일을 이용하였다. 교육평가는 효과평가와 과정평가 측면에서 실시되었다. 효과평가를 위해 영양교육 실시 전과 후에 영양지식(지식), 식행동 변화단계(태도), 식사 규칙성 및 균형성(행동), 운동습관을 측정하였으며 그 차이들을 paired t-test나 McNemar'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과정평가는 교육방법, 내용, 교육자에 대한 평가를 교육 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자료는 자가기록에 의해 수집되었다. 여고생의 경우 영양교육 후 영양지식 인지도와 정답율이 증가되었고, 우유섭취와 식사의 규칙성 및 계단이용 빈도도 증가되었다. 또한 규칙적 식사습관과 가공식품섭취감소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단계에서 교정단계로의 변화가 있었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정단계에서 유지단계로의 변화나, 단계의 되돌림은 없었다. 과정평가에 대한 분석에서 평균점수는 문항에 따라 5점 만점에 3.9~4.3점으로 높았다. 문항 별로 보면 가장 높은 점수는 적절한 용어사용이었으며 주제에 대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여대생의 경우도 교육 후 영양지식 인지도와 정답율 및 우유섭취가 증가되었으나, 식행동에 대한 태도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정평가 점수는 3.4~4.0점/5점으로 역시 높은 편이었으나 여대생에 비해서는 낮았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영양교육이 지식, 태도,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은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대생에 비해 여고생에서 교육효과가 보다 긍정적임은 가임여성을 위한 영양교육이 미리 예방차원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식단계에서 교정단계로의 변화는 뚜렷하지만 교정단계에서 실행 · 유지단계로의 변화는 미비하다는 결과는 집단강좌가 인식전환에는 유용하지만 실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일대일 대응 맞춤식 영양상담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하겠다.

*2003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01-PJ1-PG1-01CH15-0009>에 의해 지원되었음. 교신저자 : 오세영.

【P3-7】

행동이론과 활동중심 교육방법에 근거한 유아용 보건영양교육 지침서 개발

오은주† · 이지현 · 유혜은 · 김경아 · 이대영[1] · 오세영

경희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계원조형예술대학 디자인계열 애니메이션전공[1]

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고 신체성장도 활발한 시기로 올바른 영양공급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아들에서 아침 결식, 편식, 비만, 빈혈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영양교육은 영양중재의 유용한 방법으로 최근 들어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식행동변화모형과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 작용이 식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회인지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 영양교육은 식품위주의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식품과 영양에 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활동중심의 영양교육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이론들에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 영양교육 지침서를 행동변화모형를 적용하여 인식전환단계, 식습관교정단계, 바른식습관 유지단계별로 개발하였으며, 사회인지론을 근거하여 단계별로 인지된 이득과 장애, 지식과 기술 습득, 자기관리와 사회적 지지 유도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하였다. 아울러 단계별로 유용한 활동 중심의 영양도구도 제작하였다. 영양교육의 주제는 영양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규칙적으로 먹기, 골고루 먹기, 가공식품 섭취 줄이기, 건강간식 먹기" 등으로 하였다. 인식전환단계는 인식전환단계 취지 및 의의, 상담 절차 개요 설명 및 자료 수집, 주제별(규칙적으로 먹기 골고루 먹기, 가공식품 섭취 줄이기, 간식 먹기)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부적절한 식습관 문제에 대한 인식 유도, 교육도구들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식습관 교정단계는 교정단계의 취지 및 의의, 규칙적으로 먹기, 골고루 먹기, 가공 식품 섭취 줄이기, 간식 먹기 교정, 교정단계를 돕는 도구들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바른식습관 유지단계는 취지 및 의의, 식행동 교정 상태 판단, 바른 식습관 유지를 돕는 방법, 도구들로 이루어졌다. 활동중심의 영양교육 도구의 예로는 동화, 노래부르기(인식전환단계), 식품구성탑 활동, 무지개 달력상 인식전환, 식습관교정단계), 건강주먹밥 만들기, 건강간식 맛보기, 편식교정수첩 활용하기, 밥상차리기(식습관교정단계), 가족과 내기하기,

부모와 함께 식단작성하기, 음식만들기, 식탁꾸미기, 식사뒷정리 함께 하기, 칭찬해주기(바른식습관유지 단계) 등이 있다. 개발된 교육내용은 내용의 타당성, 이해도, 적합성을 고려하여 연구팀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수정 · 보완되었고, 최종적으로 전문 작가에 의해 내용과 포맷이 수정되었다. 애니메이션 전문가에 의해 남녀 어린이 캐릭터가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캐릭터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림이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용 영양교육 지침서는 유치원 교육과 보건영양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2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01-PJ1-PG1-01CH15-0009>에 의해 지원되었음.

【P3-8】

충북지역 영양사의 직무 수행도와 전공교과목에 대한 중요도 및 필요도

김기남† · 이명순

충북대 식품영양학과

본 연구는 충북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 수행도와, 대학에서 배웠던 전공교과목에 대한 중요도 및 추가로 필요로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내용이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13부였고, 최종 통계처리에 사용된 설문지는 178부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12월~2003년 1월까지의 2개월 간이었고, 사용된 통계처리 방법은 t-test와 ANOVA 분석(사후분석으로 Duncan test)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여자 영양사가 대부분이었고(98.9%), 연령면에서는 20대에서 40대가 88.8%를 차지하였고, 근무경력은 5~10년이 84.3%였다. 근무업체에 있어서는 학교가 64.0%, 산업체가 36.0%였다. 직장의 소재지는 시 지역이 가장 많아서 47.2%였다. 영양사의 처우에 대하여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직업에 대한 미래의 전망면에서는 비교적 밝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영역별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11개 직무영역에 있어서, 비교적 기본적인 수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고, 직무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근무업체(학교 또는 산업체)와 근무형태(직영 또는 위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산업체보다는 학교가 위탁보다는 직영이 다음과 같은 직무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 직무로는 식단관리, 식재료 구매관리, 조리작업 관리, 급식시설 및 기기관리, 영양교육, 자기개발 등이었다. 직무수행을 위한 전공교과목의 중요도면에서 각 직무영역별 일순위로 응답한 교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영양관리 영역에서는 영양학, 2) 식품관리에서는 단체급식, 3)사무관리에서는 급식 사무관리, 4) 조리작업 관리에서는 단체급식, 5) 위생관리에서는 위생학, 6) 실험 및 실습 영역에서는 한국조리, 7) 인사관리에서는 급식경영학, 8) 시설, 설비관리에서는 주방기기론, 9) 영양지도 및 상담 영역에서는 영양교육, 10) 교육 및 연수 영역에서는 조리학, 11) 조정 연락하기에서는 급식경영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교과목에 있어서는, 직무수행 각 영역별로 살펴볼 때 영양학 관련과목에서는 성장과 발달, 노인영양이, 식품학 관련과목에서는 식품경제학이, 급식경영관리 과목에서는 인사관리, 재무관리, 회계원리, 마켓팅이었고, 영양교육 관련 교과목으로는 영양교육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학교에서는 급식 HACCP, 건강식품, 영양학 세미나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산업체에서는 푸드스타일링개론, 식음료론, 외식창업론 등의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들로부터 수집된 자료이므로, 대학에서는 식품영양학 관련의 전공교과목을 설강 할 때나 또는 교과과정 개정 시, 이러한 현직영양사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한다면, 차후에 배출 될 예비 영양사들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들을 좀 더 많이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P3-9】

부산지역 중학교 급식의 배식형태에 따른 만족도 평가

류 은 순†

부경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

본 연구는 교실배식 및 식당배식의 배식형태에 따른 중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각 배식형태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직영으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학